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7 No 2
2025.05.11.

2025 SPRING 봄
한울타리

편집: 홍보위원회

한울타리 봄호 2025

'25 봄호 목차

권두언 -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영길 목사	1
예배예술위원회	김대식 장로	2
쉐마행사위원회	최학수 집사	3
홍보 위원회/역사편찬 위원회	이혜승 장로	5
*교인 동정	조(김)옥동 권사	8
교인 1 부 위원회	정광근 장로	9
남선교회	정광근 장로	10
국내선교위원회	채진병 집사	11
해외선교위원회	박신영 장로	12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	최현구 장로	14
* 봄호 스페셜	2025 년 신임 서리집사 33 인의 이야기	15
해바라기 주일학교	박예원 전도사	21
Ransom 중고등부	정은택 전도사	24
부부청년부	김호영/박영룡 집사	28
* 이영길 담임목사 72 세 생일 축하 기도	김문소 은퇴장로	31
여성회	곽서영 집사	32
권사회	김정림 권사	35
상록기도회	윤만강 권사	37
*칭찬합니다 :	익명의 제보자들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공현일 집사		38
*선교지에서 날아온 소식 -프랑스	안지일 김은경 선교사	40
니카라과	이동홍 선교사	42
* 리포트형식이 아닌 글들		

권두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영길 담임목사

제 친구 목사가 은퇴 후 몇 교회를 둘러 보다가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몇 달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곤 하였는데, 도저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예배후 교제를 하는 교회를 정했다고 합니다.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였으면 혼자 신앙 생활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줄 알았는데, 부부가 예배만 드리곤 하다 보니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사도신경이 떠 올랐습니다. 늘 주일마다 외우곤 하지만 천천히 살펴 보았습니다. 처음 많은 부분은 성삼위일체에 대한 긴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가지 비교적 짧은 고백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 중 성도의 교제는 두번째로 나옵니다. 이 고백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 보다 앞에 나옵니다. 정말 의아합니다. 평상시 습관에 젖어 고백을 해오고 있지만 이처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 보다도...? 아마도 사도신경의 저자들도 제 친구 목사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장로
부 위원장 김경태 집사

예배예술위원회는 제직 임직식을 시작으로 제직 수련회와 사순절의 시간을 은혜롭게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를 섬겨왔습니다.

제직 임직식 (2/2): 2 월 첫 주일, 2 부 예배 중에 6 명의 재임 장로, 16 명의 재임 안수집사, 33 명의 신임 서리집사들이 임직하며 교회를 섬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역장과 성경공부 인도자들도 함께 임명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의 걸음을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온라인 예배 (2/9, 2/16): 폭설로 인해 2 주 연속 1 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토요일 본당에서 예배영상을 미리 녹화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 (2/23): 올해 임직받은 33 명의 신임서리집사들 함께 식사교제를 하고, 자기소개와 이영길 목사님 강의, 전현직 당회서기 장로님들의 안내 말씀, 그리고 사공현일 집사회장의 집사회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 (3/8): 찬양팀이 주관한 찬양과 기도의 밤이 본당에서 열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시작과 토요 아침기도회 (3/5~): 재의 수요일 (3/5) 온라인 예배로 사순절 여정을 시작했으며, 매주 토요일 본당에서 아침기도회를 드리고, 당회원 가정들이 돌아가며 준비한 아침 식사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직수련회 (3/22): 집사회와 함께 주관한 수련회에서는 신임 제직들의 소개와 더불어, Jance Chun 전도사님의 “하나 프로젝트” 강의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넓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예술위원회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지도록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도 우리 모두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쉐마행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승 장로
부위원장 최학수 집사

“쉐마의 밤”은 유초등부, 유쓰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3 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4 월 쉐마의 밤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3 세대가 하나 되는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신임 제직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꿈꾸는 희망찬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동 깊었던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집사회와 신임 제직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카레백반으로 든든하게 육신의 양식을 채우고, 김성진/김나리 집사 부부와 예서, 예한, 예아, 예봄 가족의 촛불점화로 쉐마의 밤을 시작하였습니다. 20 대 청년부터 80 대 장년까지 3 세대로 이루어진 쉐마찬양팀이 한 무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진정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진 썬플라워 율동찬양으로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쓰 아이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앙상블’이 등장하여 유진선 집사와 함께 “Gabriel’s Oboe”와 “This is My Father’s World”를 멋진 연주로 들려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안수팀의 인형극은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주제로 직분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준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집중해서 보는 모습에서 세대를 초월한 가르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서리집사님들이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를 부르며 각자의 신앙여정을 고백할 때, 회중 모두가 집사 임직 받을 당시의 뜨거움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안고 찬양하는 모습에서 교회의 밝은 미래를 미리 상상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비만큼 축축한 담임 목사님의 메세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땅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보에와 피아노의 협주가 amazing 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하며 큰 감동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번 쉼마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판삼아 2025 년 새로 임직 받으시는 모든 제직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존 제직분들과 함께 보스톤한인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쉼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쉼마의 밤은 앞으로도 “3 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위원회/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해승 장로
부위원장 배광현 집사

1. 2025 년 사순절 묵상집 출간 및 배포 (3/2/2025)

이런 저런 수많은 쫄깃쫄깃한 위기상황을 뚫고 올해도 감사하게 사순절 묵상집이 제때 발간되었습니다. 함께 달려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진짜 발로 뛰어댕기신 배광현 집사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Contributed Authors (n=40)					
	n	%		n	%
Male	25	63	은퇴 장로	3	7.5
Female	15	37	장로	2	5
Total	40	100	집사	19	47.5
under 18	5	12.5	권사	1	2.5
20s	0	0	일반성인교인	7	17.5
30 & 40s	24	60	주일학교	0	0
50 & 60s	7	17.5	중고등부	5	12.5
70 +	4	10	교역자	3	7.5
Total	40	100		40	100
묵상글 (n=47; 40 사순절 + 7 주일)					
	n	%			
English	14	30			
Korean	33	70			
Total	47	100			
40명 작가님 중에는 1개 이상 글을 주신분들이 있습니다. (2명) 또한 퍼온글은 작가명단에 포함하지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퍼온글 작가 4명)					

묵상집에 실린 모든 글들은 최종본 이전에 작가님 개개인과의 연락을 통해 작가님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묵상집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작가 privilege 로써 묵상집이 전체교인에게 배포되기전 먼저 access 를 드리고 배포해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음해 사순절 묵상집용 묵상글들을 사순절 기간부터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묵상집을 읽으시면서 혹은 사순절

기간동안 묵상하시며 드는 reflection 을 그때 감정 그대로 써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권장해 주시고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 한울타리 겨울/봄 통합호 발간 (5.4.2025)

여러가지 사정 (맨파워 부재가 주 원인)으로 한울타리 겨울호가 묵상집 이전에 발간되지 못했습니다. 봄호와 겨울호의 통합본을 만드는데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알리고 싶은 소식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응원 부탁드립니다.

3. 교회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진행중

현재 컴퓨터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달라서 웹사이트 콘텐츠를 업데이트할때 모바일 버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에 회사를 통해서만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가지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상당기간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 디자인 팀과 협업중입니다. 디자인이 모든 기계에 따라 모양이 변해 보이는 responsive website 스타일로 바뀌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6월 쉼마의 밤 홍보영상 제작 및 유포예정 (6/7/2025)

6월 쉼마의 밤 홍보를 위한 짧은 홍보영상을 제작 유포할 예정입니다.

5. 홍보출판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일꾼을 구합니다.

1. **교회 웹사이트 유지 및 관리자:** 현재 저희 교회 웹사이트(kcboston.org)를 전담하여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 시간에 맞춰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기본 지식만 있으시면 되는 봉사자리이며, 혼자 독박쓰는 자리 아니오니 안심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많이 해주세요.
2. **교회 YouTube Channel 관리자:** 2024년이 가기전에 시간되는데로 교회 유튜브 채널 maintenance를 해보려고 계획중입니다. 불필요한 영상들은 내리고 편집이 필요한 영

상들은 편집을 좀 해서 다시 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영상작업을 함께 해 줄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도 받습니다.

3. **교회 행사 사진/영상 담당 기자:** 교회 행사나 모임시에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교회 역사를 남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고가의 사진기를 보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별한 사진 찍기 능력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 아이의 사진/ 셀카 한번쯤 찍어보신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매 행사때마다 봉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명이 돌아가면서 하게 될 예정이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한울타리 기자:** 한울타리에 실을 기사들을 모으고, 발로 뛰기도 하며 폭넓게 교인 분들과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영어 편집자도 필요합니다.

6. 이벤트, 부서/구역 홍보

각 그룹의 이벤트나 부서/구역 홍보가 필요한 부서는 홍보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함께 공조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

진정한 슬픔

조(김)옥동 권사

새벽별*을 주리라
새 힘**을 주리라
메시아를 택하라

한 발 두 발 돌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 종일
일 년 삼백 육십 오일 아니 평생을 날마다
만나러 갑니다

계단이 끝나고
허공이 뚫려
구름 몇 점 흐르며
바람을 타고 따르라 하여
헛발을

흰 구름 뒤에 먹구름이 두려웠다고
핑계를 하다

내 속의 새벽하늘
새벽별을
새 힘을

잃는 날

* 새벽별 <요한계시록: 2:28-29>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 Messiah 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새 힘 <이사야 40:30-31>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임이여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교인 1 부 위원회

위원장 정광근 장로
부위원장 김호영 집사

보스톤한인교회 교인1 위원장으로 교회 입구를 지키며 이다음 천국에서 혹 주님이 “너 여기서 뭐하고 싶으냐?” 물으시면 문지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따로 시간을 떼어 정성껏 교회를 찾으시는 교우들을 보면 그 자체로 감동이며 그 분들이 좋아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또한 새교우 환영반을 통해 많은 분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은 진실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다음 천국에서도 누리고 싶다는 마음에 해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전 이 일이 좋습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 2025년에도 보스톤한인교회에 새교우들을 보내 주시고 함께 할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 첫번째 새교우 환영반은 3월16일 시작 되었고 환영 만찬은 지난 3월 30일 Southborough 저희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기쁨과 웃음 그리고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새교우 환영반을 수료하신 새교우분들을 소개합니다. 부부청년부 소속이신 민선유/이범희 교우 가정과 김영태/김영미 교우 가정, 전복경 교우 가정, 이윤정 교우 가정, 이혜정 교우 가정 그리고 함효정 교우 가정이 찬양대와 구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보스톤한인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만나는 인연은 얼마나 특별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소중한 만남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맺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 믿습니다. 우리 보스톤한인교회는 새롭게 교회로 오시는 분들과 기존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들은 더 큰 사랑에 폭 잠길 수 있도록 돕고,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서로의 삶을 통해 초대하며 더욱 건강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가기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름다운 만남이 더 큰 열매로 자라 이 곳 보스턴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모든 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기쁨과 서로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교회 안 밖으로 나누는 큰 나무로 성장해 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회장 정광근 장로

사랑하는 보스톤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남선교회에서 봄 맞이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2월23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신앙 성숙과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협조를 도모하고 기도, 선교, 교육, 구제 및 봉사에 힘쓰고 있는 저희 남선교회의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체 남선교회 회원들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통해 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헌신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5월엔 한가족 예술제가 있는데 저희 남선교회와 집사회가 한 가족이 되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예정이고 5월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격려와 참석 부탁 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긴 겨울 뒤에 찾아오는 봄은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소중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을 만끽하시고

보스톤한인교회를 통해 함께 모이고 하나되며 힘차게 2025년을 힘차게 뛰어가는 우리 남선교회와 보스톤한인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채진병 집사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채진병 집사/πί택장으로입니다. 국내선교위는 올해 크게 3 가지 선교사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뉴멕시코 나바호 선교사역, 두번째로 오아시스 카페 선교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사역입니다. 나바호 선교사역을 위해 지난 3 월 31 일 선교위원들과 줌미팅을 가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올해 여름은 선교를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 여름부터는 다시 나바호 선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아시스 카페사역을 위한 모임도 지난 4 월 5 일에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끊겼던 오아시스 카페 공연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잠정적으로 6 월 14 일에 첫 공연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수 있는 음악 혹은 문화사역을 구상중이니 이 사역 역시 많은 교우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구제사역으로는 homeless shelter 봉사 그리고 유스그룹 아이들이 병원이나 Nursing home 등을 방문하여 mini concert 를 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mini concert 를 5 월 10 일 Spaulding Hospital Cambridge 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나 이것들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국내선교위가 계획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알차게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부위원장 김경애 권사

팬데믹 이후 교회의 선교역량과 해외선교사역을 새롭게 점검하고, 2025 년 단기선교에 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해외선교위원회가 2 월 14 일과 3 월 26 일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준미팅 참가자: 김경애, 김영돈, 김은정, 박신영, 이정민, 이재일, 원영옥, 윤만강, 윤원길, 최연일). 우선, 선교지 상황의 많은 변화와 함께 의료선교/치과선교를 중심으로 교육/봉사활동으로 편성되었던 단기선교 선교자원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년은 해외선교위원회는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지 않고,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선교교육에 좀 더 집중하면서, 선교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 교회의 선교자원을 새롭게 계발/편성하는 한 해로 삼기로 했습니다. 우리교회 선교활동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받았는 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초기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은 혼자가 아니라, 본국에서 후원하며 기도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성도들과 선교사들이 한 팀이 되어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선교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팀처럼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해외선교위원회는 교인들에게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에 대해 잘 알리는 것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선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는 본토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외로움을 체험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고국을 떠나 먼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처럼.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형제님,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흠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에서 잊혀져 가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선교소식을 전하면서, 끝부분에 선교의 현장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끼게 하는 황신재 선교사님의 기도편지 중 일부를 실었습니다. 니카라과아 이동홍 선교사님: 1 월에 뇌출혈로 마나구아 monte españa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중이십니다. 우리교회에서도 치료비지원 특별헌금을 보낼 계획.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 아시아 험지에 있는 찬이 아빠: 닫혔던 국경이 외국인에게 열리면서 방문이 가능하게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김은경/안지일 선교사님: 주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캠퍼스 사역과 지역에서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과테말라 김도연 선교사님: 그동안 섬겨온 Comunidad Galilea 선교센터의 대표직을 작년에 강 우성대 목사님에게 이양하고 현재는 동역자로 선교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황신재 선교사 에필로그 - 2025 년 1,2 월 기도편지 중에서)

작년 중순경에 채장암 말기의 한 중년남성이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산티아고로 왔습니다. 아내와 12 살 된 아들이 함께 와서 저희 사역 집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매일 돌아가며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돌봐 주었습니다. 작년 말 이 남성은 결국 숨을 거두었고 아내와 아들은 지방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사역으로 한창 분주하던 어느 주말 이 가족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와 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저희는 2 시간 남짓 떨어진 곳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이 초대 한 지인들과 함께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소개한 다음 사람들에게 간증을 이어 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방에 매일 찾아와 나누어준 말씀과 기도가 쓴 뿌리로 가득했던 13 살 아들의 삶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말씀을 읽어가던 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에게 저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년에 봤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확고해진 신앙을 확인하고는 집 뒤뜰의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소년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저의 아빠의 죽음 가운데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평생,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니콜라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

최현구 장로

2025 년도 첫 번째 찬양과 기도의 밤이 3 월 8 일 토요일 오후 6 시 30 분에 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찬양과 기도의 밤은 다양한 악기들과 함께 청년 1, 2 부 회원들이 연합 찬양팀을 구성하여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의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가 한데 어우러져 참석한 교우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찬양과 기도의 밤에는 특별히 윤경문 목사님께서 ‘나그네들의 찬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찬양과 기도의 밤을 준비한 청년 1, 2 부 연합 찬양팀 (권시윤, June Kim, 박민규, 박혜빈, 백현, 부지형, 안성민, 이준석, 임주광, Justin Lim, Ethan Jeon, 정민지, 천동혁) 방송실에서 도움 주신 이장현 집사님, 예배 후 친교를 위해 다과를 준비해주신 김희현 집사님, 그리고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해주신 윤경문 목사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봄호 스페셜





이태경 집사

82년 동기
'하나/라헬/사라'
아빠이자 '최미래' 집사
남편입니다.

다짐: 범사에 늘 감사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잊지
않기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최미래 집사

안녕하세요.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최미래
집사입니다.

다짐: 무릎사이에 머리를 넣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 되리



한 국 집사

센플라워에서 와이프
손호정 선생님과 함께
킨더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국입니다.

다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김주리 집사

남편 홍선표, 외동딸
홍지연의 엄마
김주리입니다.

다짐: 부족함이 많을테지만
집사직분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마라나타

김호영 집사

죄인중에 괴수 부청
회장
김호영 입니다.

다짐: 매순간 주님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함께 나누는 가정
되겠습니다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박영룡 집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룡 입니다!

다짐: 매일의 삶 가운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 해 나가겠습니다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김성진 집사

안녕하세요 신임
서리집사로 섬기는
김성진입니다.

다짐: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와
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김나리 집사

안녕하세요 신임
서리집사로 섬기는
김나리입니다.

다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겠습니다



마라나타

장유진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서리집사의
책임을 맡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다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왕희연 집사

이번에 새로 섬기게 된
왕희연입니다.

다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현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보게 되리

송인우 집사

안녕하세요
자주 뵈요.

다짐: 하나님도 자주 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최연경 집사

안녕하세요.
최연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짐: 주님 앞에 겸손히
쓰임 받는 자녀로 거듭나길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곽보람 집사

안녕하세요,
신임 서리 집사
곽보람입니다.

다짐: 제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김고은 집사

북동구역
김고은입니다.

다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길
다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 되리



곽태경/박한아 집사

보스톤한인교회에서 3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짐: 앞으로 신임서리집사로써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김석빈/정혜윤 집사

이번에 새로 서리집사로
섬기게 된 김석빈,
정혜윤입니다.

다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말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유우진 집사

안녕하세요,
신임 서리집사
유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겠습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김정인 집사

22년11월부터
보스톤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서리집사 김정인입니다

다짐: 하나님의나라에서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삶을 살겠습니다



우린 보게 되리

전선 집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나아가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짐: 주어진일에 최선을다하며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김현지 집사

서리집사
김현지입니다.

다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홍민기/이한나 집사

쉐마/영어예배 찬양팀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짐: 이제 서리 집사로서 오랜 시간 보스톤
한인교회가 걸어오고 개척해온 길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미력이나마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



송동현 집사

부청에서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
송동현입니다.

다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는
공동체를 위해 힘내겠습니다.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구다희 집사

부청에서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 구다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짐: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신임 서리 집사 33인 선언문

1. 우리는 보스턴 한인교회 서리 집사임을 **선언합니다.**
2.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 말씀 개혁에 **동참하겠습니다.**
4. 최고의 거룩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인 것을 알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5.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맡겨 주신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해바라기 유초등부 주일학교

박예원 전도사

선플라워에서 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눈이 꽤나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줌으로 그리고 현장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일 예배를 지켜갈 수 있음에 감사한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봄은 특별히 유독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는 학부모님들께서 전해주시기로는 주일이 되어 교회 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또한 각 가정에서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의미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에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선플라워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들의 고백들이 가능하도록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동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설날잔치]

보스톤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부족함없이 허락해주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주신 믿음의 윗세대 어른들께도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세대 또한 기도의 단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도 상기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봄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1 월에는 복주머니 준비가 있었고 저희 선플라워 자체적으로 성경암송퀴즈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성경암송퀴즈대회가

아이들에게 참으로 의의가 깊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초등부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플라워는 매주 주말마다 초등/유년 두 예배 시간 모두 이번 달의 말씀을



[삼일절 행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메인 강사로 조은일 교수님을 모시고 각 부서별 세션은 정은택 전도사님과 제가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읽고 외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 월에는 설날 잔치에 아이들과 한복을 입고 참여하여 3 세대의 전통을 지키며 배웠고, 후에는 삼일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월의 마지막 주에는 특별히 아주 오랜만에 교육 1 부에서 주최하는 교사/학부모



[예배 이후 동화책 함께 읽는 시간 - 당시 폭설로 인한 하이브리드 예배 진행 - 참고로 이 때 읽은 책은 지난 9 월(?) 쉼마의 밤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적 언급해주신 The House Before Falling into the Sea 입니다]

다가오는 4 월부터 여름까지는 정말 다양한 행사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번 VBS 를 위해 올해도 많은 분들이 섬기시기를 자원해주셨고, 각 부스별로 이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올 해의 VBS 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고 남겨져서 추후에 아이들을 든든히 지탱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도록, 부족한 주의 종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선생님들과 자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생명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눈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ansom Youth Group

정은택 전도사

안녕하세요, 겨울과 봄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쁨과 은혜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제자훈련 수료

먼저, 올 봄학기에는 아린, 유준, 희준, 희진, 지애, 지인, 은채, 조은, 유니아, 진서, 정인, 호준, 하성, 현준 학생들이 제자훈련에 참여하여,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아이들의 배움과 믿음의 고백이 묵상집에 담겨 있어, 온 교회가 함께 이 열매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 복주머니 사역

또한, 저희 유스그룹은 선플라워 사역팀과 함께 복주머니 사역을 준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정성껏 복주머니를 만들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베이비샤워 행사

마지막으로, 특별한 감사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담당 전도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주셨습니다. 이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정성껏 베이비샤워를 준비하여,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의 부모님께서도 따로 베이비샤워를 마련해주셔서, 넘치는 감동과 감사 속에 2 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 다시 한 번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부청년부

회장 김호영/박영룡 집사

보스톤한인교회 모든 가족에게 부부청년부(부청)에 있었던 아름다운 고백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청은 매주 말씀, 조모임 삶나눔/성경공부, 새가족 환영회, 베이비샤워 (정로이 출생), 생일축하 등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청 안의 작은 고백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함께 느끼길 소망합니다.

1. 이요한 목사님 올해 첫 부청 설교 - 김호영 집사 고백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19]”

“저는 부청 회장이지만 아직도 저를 보스톤한인교회에 외인과 나그네라 생각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제가 외인, 나그네가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보스톤한인교회에 오래 다닌 자든, 보스턴 지역에 정착한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상관없이, 부청에 있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2. 김영화/천홍주 가정 고백 (신앙 나눔 Within Us)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25]”

“한국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앞으로 부청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가정과 같이 공동체의 사랑을 마음껏 느꼈으면 좋겠어요.”

3. 김명업 집사 고백 (생일 파티)

"부부청년부에서 여러 해 동안 회계로 섬겼지만, 사실 뒤에서 요리조리 교회 섬김을 피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정광근 장로님께서 예배예술위원회의 섬김을 부탁하셨고, 순종해서 얼떨결에 예배예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배 섬김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이젠 제대로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잘 섬기고 있어요. 부청 안에서 기신자들의 변화와 열정 회복의 사건을 통해 부청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더 깊은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4. 김태훈/박영진 교우 고백 (교인 1 부 위원회 새가족 만찬)

"아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부청에 오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여러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중 지인이 준 C. S. Lewis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교인 1 부 위원회 새가족 만찬 때 윤경문 목사님, 최현규 장로님, 정광근 장로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가지기 위한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올해 상반기 세례반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어요. 기대됩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한 기도의 응답이 부청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담임목사 72 세 생일 축하 기도

김문소 은퇴장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72 회
생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보스톤한인교회가 설립된 1953 년에 이
목사님도 탄생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천구백구십오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된 이래,
30 년간 한결같이 겸손하게 목회해
오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 온
저희들도 참 행복합니다.



그간 현 교회당 인수와 관리, 또 교회 창립 50 주년 첫 희년 행사 및 제 2 의 희년을 향한 비전 선언, 그리고 ECC (Education & Community Center) 건립과 보스톤한인교회 60 년사 출판 등등 모두를 이 목사님 지도아래 온 제직과 교인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서 참으로 수복했던 목사님의 까만 머리가 오히려 이제 민둥산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는 교인 한분 한분의 구원을 애타하며 외치신 말씀 선포와 어려운 목회 때문인 줄 여겨지니 저희는 송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생일 축하 케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목사님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3.9)

여성회

회장 곽서영 집사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바쁜 일정을 가지며,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커지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 대한 참여가 줄어들고, 봉사 활동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성회도 이러한 영향으로, 기존에 두 그룹이었던 여성회가 하나로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2025 년 1 월에 있었던 마리아 여성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이름을 보스톤한인교회 여성회로 바꾸고 45 세 이상이던 나이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권사회에 속하지 않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여성분들은 누구나 여성회에 속하며, 권사회와 함께 당회의 여성사역위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여성회의 뜻을 이어가지만, 현재 여성 성도들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친교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 년의 새 여성회 임원들은 고문으로 이소은, 진정원 집사님들과 이성혜 사모님, 그리고 회장 곽서영, 총무 오주경, 회계 이성희, 서기 박선희, 부회장 노윤경 집사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1 부 다과를 위해 헌물 또는 헌금해 주신 분들과 연락하며 매주 1 부 다과를 준비 및 정리하며, 교회 친교를 위한 물품구매 및 관리, 창고와 부엌 정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는 보스톤 여성 중보 기도회를 줌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pecially 2 월에는 KCB 여성회를 소개하고 인사를 드렸으며, 신임 임직분들을 위한 코사지를 만들어 배부하였습니다. 2024 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성회는 회원들이 만나고 서로의 삶과 믿음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2 월 네번째 주일에 여성회 친교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생신에는 케익을 준비하여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고, 많은 우리 회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여성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회원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봉헌찬양은 많은 성도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4 월에는 부활절 특별다과로 떡을 준비하고 있고, 4 월 넷째주에는 두번째 여성회 친교 식사모임이자 권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사역위원회의 점심 식사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만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서로를 아직 잘 알지 못하고 만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이 친교 모임을 통해서 삶과 믿음의 여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만 묶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미래의 여성회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함께 길을 만들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성회라는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여성회에 초대합니다.

권사회

회장 김정림 권사



본 교회 권사회는 새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하여 2025 년도 권사회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권사회는 늘 교회의 뒷전에서 몸 되신 주님의 사업을 위해 힘쓰는 여러 부서를 기도와 봉사로서 힘을 실어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모두가 심적 물적 육체적으로 서로 도우며 조화를 이루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권사회 헌신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교회의 여성사역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과 섬기실 회장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여성회 대내외행사로는 1) 동북대회 여성연합회를 후원하며 2) 국내외 선교활동을 지원하고, 3) 매년 4 회에 걸쳐 행해지는 성찬예식의 전체 준비과정을 담당하며, 4) 상록기도회 회원들을 위한 생신, 위로카드 보내기, 5) 경조사에 따른 화환보내기, 6)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7) 구제와 심방, 8) 다과봉사, 9)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여러부서에 오찬봉사 등등 다양한 사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는 권사회 헌신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리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였습니다. 또한 4월 6일에는 교육 1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한 오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부활절 특별다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 권사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권사회를 섬기시는 회장단 분들〉

고문: 이성혜 사모, 김경희

회장: 김정림

총무: 김영미

서기: 서명숙

회계: 신미송



상록기도회

회장 윤만강 권사

1 월 19 일 월례회때는 2024 년도 회계 보고를 받고 2025 년도 행사 계획을 하였다.

2 월 2 일 주일에는 온교회 구정잔치 행사에서 상록 기도회 회원들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세배를 받으며, 세뱃돈을 주면서 축복해 주었다.(세뱃돈은 돌아가신 박기춘 권사님의 따님 은혜씨께서 주셨다)



[설날행사 중 세배받고 덕담해주고 계시는 상록회 회원분들]

이상구 권사님을 추모하면서, 김한나

장로님 가정에서 회원들에게 맛있는 점심식사를 TinTin Restaurant 에서 대접해 주셨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때마다 회원들의 동정을 서로 보고하고 또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심방위원을 정하여 회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 주일 1 부예배 후 다과시간을 아껴 잠깐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민생활 역사도 써 보도록 격려하고 있다.

(매 주일 상록 기도회 회원들을 위하여 다과와 음료를 따로 Table 과 의자를 준비하시고 섬겨 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공현일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집사회장, 사공현일 집사님은 우리 공동체에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교회를 섬겨온 집사님의 헌신과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줍니다.

현일 집사님은 지난 10 년 넘게 청년부 간사로서 수많은 청년들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타지에서 외롭고 지친 청년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와 삶의 지혜가 담긴 조언으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요. 그 깊은 공감과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많은 청년들의 기억에 살아 있습니다.

집사회 임원으로 여러 해 동안 섬기는 동안에도 늘 묵묵히, 세심하게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예배 준비는 물론, 각종 행사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일하시며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건물관리 위원회와 기획관리 위원회에서든 꼼꼼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은, 많은 교우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언어적 능력은 세대와 문화가 다양한 교회 안에서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었고,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현일 집사님은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 늘 정성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가장입니다. 가끔은 한발 더 나가서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되지만.. 그의 와이프와 딸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서의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과 묵직한 책임감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사공현일 집사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집사회장이시라는 것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편집자 주**〉 ‘칭찬합니다’ 코너는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교우님들을 대놓고 칭찬하는 코너로 칭찬하시는 분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교지 소식 - 안지일/김은경 선교사의 4 월 선교편지

안지일 김은경 선교사, 프랑스



그동안 소식을 자주 드리지 못했는데도 끊임없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신뢰와 기도의 힘으로 이곳에서 사부작 사부작 꿈지락 꿈지락 😊 (어른 김장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소식을 날마다 접하며, K9 대포에 들어가 새벽까지 몇 시간을 전쟁이 난줄 알고 불안해 하며 출동 준비를 했던 아들과 통화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가까워지는 전쟁 소식도 널뛰는 환율과 관세전쟁도 전 세계를 주관하시며 권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과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비록 눈물 골짜기의 황폐한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곳을 많은 샘물의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84:5,6 우리 마음에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큰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작년 12 월 말 30 일부터 새해 1 월 3 일까지 계엄령을 비롯해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0 여개국 162 명의 청년들이 파리 남쪽에 있는 수양관에 모여 GNG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프랑스 현지인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여 기쁨이 배가가 되었고 그들중에 리더 훈련을 결심한 세 명의 현지인 청년들이 훈련을 받고 있어서 감사가 큼니다. 그중 저희 막내 시진이도 리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리옹 교회에도 새로운 식구를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오는 부활절 4 월 20 일에 세 명의 자매들 로렌, 룩사나, 안시진이 세례를 받습니다. 로렌과 룩사나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친구들입니다. 리옹 교회에는 한불 예배를 하고 프랑스인이 약 60 퍼센트 한국인이 약 40 퍼센트인데 한국에서 교회에 거의 가 본적 없는 친구들이

매 주 예배에 오다가 예수님을 믿게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을 하며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모든 이가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은 제대로 듣게하자는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몇 달 후 성찬식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을 볼 때 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뻥뻥합니다.



또 올 봄은 하나님께서 평생 동반자가 될 주님의 사람들을 결혼하게 하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리옹의 리더로 그리고 유럽의 일꾼으로 헌신된 현숙한 최향 자매가 디미트리 콥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결혼식의 시작입니다. 디미트리 형제는 저와 남편이 스위스 엠마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를 가르치신 은사 도날드 콥 교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세이 자매와 레오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레오가 세이 자매를 만나 예수님을 알게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모든 레오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의 형 폴이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었고 그가 있는 니스에서 다닐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와 그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즈니스 사역인 꼬빵 Kopain 은 날마다 발전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인 임채환 형제의 헌신과 함께하는 디모데 그리고 저희 두 딸과 알반이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소식은 꼬빵에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셔서 곧 임채환 형제가 독립하여 꼬빵의 프랜차이즈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그 구역과 도시에 들어가서 그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하는 도시 수도원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남편 안지일 선교사가 결국 심장 수술을 해야한답니다. 가슴 가운데를 오픈하지않고 옆구리로 수술하기엔 몸 두께가 얇아서 불가능할 수 있고 판막이 고치기에는 쉽지않은 모양이라 제거하고 돼지인공판막을 달아야할 수도 있답니다. 최소한의 수술을 옆구리 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모든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업에도 많은 샘들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겨울 집회 GNG 12/30~1/3]

선교사 소식

이동홍 선교사, 니카라과

장로님, 평안하시지요?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모금해서 선교비 보내주신다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 월 원치 않는 병으로 앓아 누웠다가 3 월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단지내를 걷는 등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며 5 월 1 일 한국을 방문하여 5 월 8 일 서울성모병원 검진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오는 6 월 5 일 니카라과로 귀임하여 계속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는 1. 저희 내외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하여; 2. 개척한 20 개 니카라과 장로교회를 위해; 3. 건축중인 세상의 빛 교회와 하늘가는 길 교회를 위하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강건하십시오. 이동홍 드림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617.739.2663 / www.kcboston.org